

## ‘오월’·‘자유’만 강조... ‘5·18 헌법 수록’ 언급 없었다

尹대통령 5·18 기념사 살펴보니  
올해 ‘오월’·‘자유민주주의’ 연계  
지난해 키워드 ‘오월·민주·정신’  
22년 “오월정신, 통합의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5·18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자유’, ‘광주’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민의 염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은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은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며, “(그것이)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경제성장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올해 기념사는 총 978자로 구성됐으며 전체 5분18초로 지난해인 43주년때보다 약간 길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861자로 5분 분량을 겨우 채웠다. 역대 가장 짧았던 기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837자였다.

올해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키워드는 ‘오월(5·18)·자유·광주’였다. 각 단어 별로 오월 12번·자유 10번·광주 6번씩 거론됐다.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오월’이라는 단어 뒤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바로 따라왔다. 대표적인 것은 “오월의 피와 눈물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 “1980년 5월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 항거했다” 등이다. ‘광주’를 거론할 때는 ‘광주정신’이 뒷받침됐다. 그리고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윤석열 대통령과 5·18 유족 등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43주년 기념식 주요 키워드는 ‘오월(5·18)·민주·정신’이었다.

‘오월 또는 5·18’은 모두 14차례 등장했으며, 항거와 정신을 강조할 때 사용됐다. ‘민주’는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언급하며 13차례 인용됐다. ‘정신’이라는 단어도 13번 포함됐다. ‘역사’라는 단어는 한 차례만 포함됐고, ‘아픔’이나 ‘피’, ‘항거’, ‘헌신’도 한 번씩 언급됐다. 그러나 역사 왜곡과 맞닿아 있는 ‘모욕’이나 ‘편향’, ‘훼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오월 정신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구심체”라고 의미 부여를 했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없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 취임 직후 방문한 42주년 기념식에서도 ‘5·18 정

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통합·호남 번영’을 주로 사용하며, 오월 정신의 중요성과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

해당 연설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수정해 완성했다고 알려졌는데, 분열된 선거 결과 탓인지 ‘통합의 주춧돌’이라는 문구가 강조됐다. 키워드 별 등장 횟수는 자유민주주의는 8번, 자유는 4번, 인권은 8번이었다.

전반적으로는 ‘독재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지켜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으며, ‘자유,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는 불공정과 불법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42년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항거”라면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시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은 없었고, 그 자리는 통합이 차지했다. 대표적인 발언은 ‘오월정신은 통합의 주춧돌’이라는 말이었다. 기념사에서는 ‘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선구자’, ‘광주의 미래’, ‘광주의 경제적 성취’ 등 호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면서 발전을 약속해 기대감을 키웠다.

종합해보면 지난 3년간 윤 대통령은 △2022년 ‘자유·인권·통합·호남 번영’ △2023년 ‘오월(5·18)·민주·정신’ △2024년 ‘오월(5·18)·자유·광주’를 5·18 기념사의 주요 키워드로 사용하며 광주를 달렸지만, 그 안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는 없었고, 광주시민이 그토록 바라는 5·18 헌법 수록은 빠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국민이 듣고 싶어했던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면 노병하 기자

‘달빛동맹’ 광주시-대구시  
오월정신 헌법 수록 ‘합심’  
홍준표 “개헌 논의 손 맞잡겠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종화 대구경제부시장 등 대구시 대표단을 직접 맞이했다.

이날 홍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홍 시장은 참배 직후 언론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시대는 지났고,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쟁점도 모두 정리됐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전문에는 일제에 항거한 3·1운동,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19가 담겨 있다. 5·18도 같은 선상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기념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80년 오월광주는 고립되고 외로웠으나 오늘의 광주는 홍준표 시장처럼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기억해준 덕분에 친구가 많이 생겼다”며 “5·18의 가치를 헌법전문에 새기기 위한 개헌 논의에 손을 맞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5·18묘지 참배 이후 광주-대구 간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동맹’은 군공향특별법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으며,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남북거대경제권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광주와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통합공향과 관련한 군공향특별법 개정 추진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화순팜 LINE-UP

베스트 선물은 다 모였습니다! 뽕뽕한 라인업

250

품목

화순팜 [www.hwansunfarm.go.kr](http://www.hwansunfarm.go.kr)

굴비세트

미니 파프리카

대추방울토마토

발효소곰

적벽한우

화순군 청정 역거리 대표 소항품